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톡톡'

익산다리로움 시즌2, 캐시백 14억원 지급... 140억원 이상 골목상권 유입 효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익산다리로움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특히 편의성과 경제성까지 더해 한층 탄탄해진 다리로움 시즌 2는 지역 내 소비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다리로움 총진 금액은 227억원이다. 다리로움 사용실적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급된 캐시백 총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진 금액 227억원 가운데 140억원 이상이 지역 골목상권으로 유입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리로움 사용 후 다음달 지급되는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은 이달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부터 정부의 보조금 축소 움직임에 대응하고 다리로움의 효율적인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20% 지원 혜택을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사용할 때마다 적립되는 캐시백 형태로 전환했다.

고소득 시민에 대한 지원 풀림 현상과 적립액이 낮고 쓰지 않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0만원 구간을 기점으로 캐시백과 소비촉진지원금 지원 비율도 변경했다. 자체 분석 결과 전체 사용자의 약 68%가 50만

원 이내 소비층으로 파악되었으며,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에서도 인센티브와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에 대한 수혜 풀림 방식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적립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리로움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하반기에도 최대 20% 지원 혜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50만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비율인 10%의 캐시백(5만원)이,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까지 5%의 캐시백(25만원)이 사용할 때마다 지급되며 소비촉진지원금도 50만원 구간 별로 차등 지원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군산시, 청년의 날 맞아 토크콘서트 개최

군산시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지난 16일 2022년 군산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청년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려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됐다.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박경태 군산시의원, 청년협의회, 청년 포럼 등 청년단체와 창업가, 예술인,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대표 및 군산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청년들이 보람과 행복을 느끼려면 꾸준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문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와 협력하여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군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 군산 살이’를 주제로 청년들이 군산에 살면서 느

꼈던 인구감소, 일자리, 출산 등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청년인구 감소 원인으로 우리 사회가 성공의 잣대를 인서울, 대기업 취업 등으로 보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출산 정책,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경태 시의원은 “청년 시의원으로 서 청년들의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 사는 게 스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회와 경합이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이다”며, “지 의회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여 청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군산시가 더 열심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가 19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19일간의 임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는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일반안건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5건으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미 의원),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오임선 의원),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경진 의원)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한동연 의원)을 채택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대한시니어보디빌딩 전북협회 군산서 창단식

대한시니어보디빌딩 전북협회가 지난 17일 군산이름다운에 당회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30여명의 회원들이 시니어답지 않은 젊은 모습으로 행사에 임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김광수 전북정무부보, 군산시 황철호 부시장,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 강태환 의원, 김동구 의원, 군산시의회 지혜춘 의원, 송미숙 의원, 김영란 의원, 윤신애 의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북대학교 LING 전안균 교수, 한국대배위전연구원 육화봉 이사장, 전북연합신문 전성수 사장, 군산원예협동조합 고계근 조합장,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김대호 지부장, 한국언론사협회 강철수 사무총장, 군산경제포럼 최관규 대표 등도 참석해 축하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가을축제 풍성... 준비 만전”

10월 한 달간 6개 축제 개최... 온 시민 함께 즐기는 문화의 장 준비 지시

정헌을 익산시장의 축제의 계절을 맞아 온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1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많은 축제가 3년 만에 정상화되어 시민들을 찾아간다”며 “이번 축제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지친 시민들과 익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제 개최일까지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축제 홍보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익산은 서동축제를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6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지역의 대표 축제 서동축제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15일 익산생태학습축제, 20일 NS록페스티벌에 이어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호러 홀로그래프 페스티벌이 다음달 21일 동시에 막을 연다. 마지막으로 익산 보물찾기 축제가 28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을 찾아간다.

또한 정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헌을 평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시는 공식사회 강도 높은 청렴 정책

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시 단위 전국 최고등급을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국가에서 청렴하다고 인정해 준 덕분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도시를 조성해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직원은 청렴을 생활화하여 건장한 공식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청렴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형 복지 한자리에’ ... 제2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익산시는 익산형 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 모아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복지자수를 높여나간다.

시는 오는 24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익산, 사랑을 품다’는 슬로건으로 제2회 익산시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관내 공공과 민간 사회보장 기관·단체·시설 등이 참여해 복지 관련 다양한 정보와 현장 복지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복지 수요계층이 세분화·다변화되는 환경에서 익산형 복지정책을 홍보해 시민 누구나 복지를 체험해보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생각할 기회와 장이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악양상블 리라의 식전행사로 시작하는 기념식 행사는 지역복지 유공자 20여명에 대해 표창한다.

또한 아동부터 노인 및 통합서비스 분야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테마로 다채로운 체험 참가 활동과 익산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복지 활동을 보여,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40개의 체험홍보 부스, 11개 팀의 문화공연, 익산시 마스코트 마뽀이 포토존에서 무료 즉석 사진 서비스 사회복지로 4행시 짓기 등의 부대행사에 경품 추첨까지 박람회를 찾은 모든 분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사진 전시공간에서는 내가 사는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활동을 알 수 있으며, 평소 생각만으로 그쳤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1인 1계좌 나눔 갖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6일부터 올 하반기 구제역백신 접종

군산시는 오는 26일부터 4주간 소·염소 2022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회해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으로, 백신접종 소홀, 농장별·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접종 누락을 해결하고자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292호, 14,946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접종과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며,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고령 질병, 거동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접종을 지원해 접종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